

“KIA 우승 축하...광주FC도 힘 보여줄 것”



‘부주장’ 이희균 오늘 비셀 고베와 아챔 5차전 앞두고 각오 10일 K리그1 제주전 출전 “타이거즈·광주FC 다 잘됐으면”

“KIA 타이거즈 우승 축하합니다. 한 지붕 아래 모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주FC의 ‘부주장’ 이희균(사진)은 최근 야구 재미에 빠졌다. KIA의 올 시즌 질주를 지켜본 그는 ‘V12’이 확정된 5차전도 잊지 않았다.

올 시즌 강행군을 펼치고 있는 광주, 리그에서는 마음처럼 성적이 나지 않으면서 ‘부주장’의 잠 못 이룬 밤이 이어지고 있지만 같이 광주를 연고로 하는 KIA의 우승은 이희균에게 기쁨이 됐다.

이희균은 “강행군에 적응하고 있다. 팀 격정에 잠 못 자고 있다. 스트레스 때문에 잠이 안 온다. 그런데 KIA 타이거즈가 우승해서 기분이 좋았다”며 “마지막 경기다 봤다. 우승할 줄 알았지만 축하한다. 정말 잘하더라. 보면서 재미있었다. 나성범 선수의 팬이다. 멋있다. 피지컬도 압도적이다”고 웃었다.

이어 “한 지붕 아래 KIA, 광주 모두 다 잘됐으면

좋겠다. KIA 팬분들이 많이 도와주면 좋겠다. 우리도 배운다는 입장이다. 구단끼리 초대도 하고, 소통도 하면서 서로 야구도 배우고, 축구도 배우고 하면 재미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야구 재미를 느꼈다는 이희균, KIA에서는 장현식, 정재원 등이 ‘정효불’에 폭 빠졌다. 비시즌에는 박찬호, 김도영 등이 유니폼까지 맞춰 입고 풋살을 하기도 한다.

KIA의 우승 질주 기운을 이어 광주는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한 막판 스퍼트에 나선다.

아쉽게 지난 3일 대전하나시티즌과의 K리그 1 36라운드 홈경기에서 0-0 무승부를 기록, 잔류 확정에 실패한 광주는 10일 오후 4시 30분 제주유나이티드와의 올 시즌 마지막 원정경기를 통해 승리를 노린다.

이에 앞서 5일 오후 7시 미사키공원 경기장에서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이하 ACLE) 그룹 스테이지 4차전 비셀 고베와의 원정경기를 치른다.

광주는 올 시즌 리그에서는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했지만, 처음 도전한 ACLE에서 3연승 중이다. 수준 높은 광주의 축구를 보여주면서 ‘광주’를 아시아에 알리고 있다.

정면 승부를 펼치는 ACLE을 통해 자신감을 얻은 이희균은 광주의 축구가 더 큰 바람을 일으키길 바란다.

이희균은 “상대가 내리서 축구를 하고, 우리가 역습하고 그런 경기는 팬분들 보실 때도 재미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강원-울산전만 봐도 퀄리티 높은 축구가 이뤄졌다. K리그에도 그런 축구가 많아지면 좋겠다”며 “우리팀이 일본팀을 상대로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 일본팀하고 하면 더 자신감도 생기고 재미있다. K리그도 J리그에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이희균은 “고베가 높은 순위에 있는데, 우리 축구 잘해서 꼭 승리하고 팬들에게 좋은 추억될 수 있게 노력 많이 하겠다”고 승리를 다짐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한국 수영 신기록 행진 경영월드컵 이주호·김민석 등

한국 수영 대표팀이 2024 국제수영연맹(AQUA) 경영 월드컵 3차 대회가 열린 싱가포르에서 한국기록을 세 차례나 새로 쓰고 4일 귀국했다.

먼저 배영 간판 이주호(서귀포시청)가 싱가포르 OCBC 아쿠아틱 센터에서 열린 대회 첫날인 지난날 31일 남자 배영 200m 결승에서 1분 52초85에 레이스를 마쳐 1주 전 인천에서 열린 경영 월드컵 2차 대회 때 자신이 세운 한국기록을 0.1초 단축했다. 다만 3위 잭 달그런(미국)에 0.05초가 뒤져 시상대에 오르지 못했다.

경영 월드컵은 올림픽 등을 치르는 길이 50m 롱코스보다 아닌 25m 쇼트코스에서 개최된다.

대회 이틀째인 1일에는 남자 개인혼영 200m에 출전한 김민석(부산시수영연맹)이 하루에 두 번이나 한국기록을 경신했다.

예선에서 1분56초91로 결승에 진출하면서 역시 1주 전 인천에서 노민규(경기도)가 세운 한국기록 1분56초96을 0.05초 앞당기더니 오후에는 1분55초96으로 한국기록을 다시 새로 쓰고 최종 6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손흥민 돌아왔다

홍명보 감독,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5·6차전 명단 발표 광주FC ‘수문장’ 김경민 33세에 첫 태극마크 “즐거웠다”

“어안이 병병하다”며 33살에 첫 태극마크를 단 광주FC의 ‘수문장’ 김경민(사진)이 꿈의 하루를 보냈다.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4일 서울 신문로 축구 회관에서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5·6차전에 출전한 26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 명단에는 햄스트링 부상으로 요르단, 이라크와의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3·4차전에 참가하지 못한 ‘캡틴’ 손흥민(토트넘)이 다시 이름을 올렸다.

손흥민은 지난 3일 프리미어리그(EPL) 애스턴 빌라전에서 선발 출전해 시즌 3호 도움을 기록하는 등 부상 복귀를 알렸다.

광주 수비의 핵심인 골키퍼 김경민도 26명의 명단에 포함됐다.



하지만 요르단과 3차전에서 발목을 다쳐 중도 하차했던 황희찬(울버햄프턴)과 역시 같은 경기에서 무릎 부상을 당한 엄지성(스완지시티)은 이번 중동 2연전에는 나서지 못하게 됐다.

대표팀은 14일 오후 11시 쿠웨이트 쿠웨이트시티의 자베르 알 아흐메드 국제 경기장에서 쿠웨이트와 조별리그 5차전을 갖는다. 이어 19일 오후 11시 요르단 암만 국제 경기장으로 이동해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6차전을 치른다.

한국은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조별리그에서 3승 1무(승점 10)를 기록하면서 요르단·이라크(이상 승점 7), 오만·쿠웨이트(이상 승점 3), 팔레스타인(승점 2)에 앞서 B조 선두를 달리고 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5·6차전 축구대표팀 명단(26명)

▲골키퍼(GK) = 김경민(광주) 조현우(울산) 이창근(대전) ▲수비수(DF) =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조유민(샤르자) 이명재(울산) 정승현(알와슬) 권경원(코르파칸 클럽) 설영우(즈베즈다) 황문기(강원) 이기혁(강원) 이태석(포항) ▲미드필더(MF) = 손흥민(토트넘)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이재성 흥현석(이상 마인츠) 정우영(우니온 베를린) 황인범(즈베즈다) 박용우(알아인) 백승호(버밍엄시티) 배준호(스토크시티) 이현주(하노버) 김봉수(김천) ▲공격수(FW) = 주민규(울산) 오세훈(마치다 젤비아) 오현규(헝크)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젊어지고 빨라진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 기대”

신한SOL페이 2024-2025 핸드볼 H리그 미디어 데이 오세일 감독 각오 밝혀...1월 2일 경남개발공사와 대결

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이 ‘젊어진 팀’과 ‘빠른 핸드볼’을 새 시즌 각오로 밝혔다.

신한SOL페이 2024-2025 핸드볼 H리그 미디어 데이(가남·여 총 14개 구단 감독과 선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4일 서울 호텔리베라 청담에서 열렸다.

광주도시공사는 ‘젊어진 팀’과 ‘빠른 핸드볼’로 한층 성장한 모습을 보여줄겠다는 계획이다.

광주도시공사 오세일 감독(사진)은 “올해 고참 선수들이 타팀 이적 및 은퇴 선수들이 좀 있기에 이번 시즌에 새로 영입한 선수들과 기존에 있던 선수들을 주축으로 이번 리그를 준비하고 있다”며 “부상이 있었던 송혜수와 이아현 선수가 팀에 복귀하면서 팀의 전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리그에서만큼은 부상 없이 광주도시공사가 도약하고 성장할 수 있는 리그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번 시즌을 앞두고 박조은(GK), 원선필(PV), 이한솔(PV), 방민서(RW), 한승미(RW) 등 기존 선수들과 이별하게 된 도시공사는 전력을 보강해 줄 ‘새 얼굴’들로 그 자리를 메웠다.

도시공사는 지난달 23일 열린 신인 드래프트에서 피봇 연지현, 센터백 김지선, 라이트백 조연서

를 지명하며 팀에 젊은 에너지를 더했다.

또 FA 대상이었던 박조은과 SK수구글라이더즈 소속이던 이민지(GK)의 트레이드가 지난 1일 진행되면서 골키퍼에도 변화가 생겼다.

광주도시공사 유니폼을 입게 된 이민지는 지난 파리올림픽에서 뛰며 한국의 골문을 책임졌다.

이번 시즌 주장은 서아루(LW)가 맡는다.

오 감독은 “작년에는 부상이 많아서 10명으로도 경기를 했었다. 올해 새로운 선수와 기존 선수들이 진정한 ‘빠른 핸드볼’로 뒀던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길 생각하고 있다”며 팀의 발전 또한 얘기했다.

정현희(RB)는 “지난 시즌에 부상 선수가 많아서 좋지 않은 성적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이번 시즌에는 몸 관리 잘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2024-2025 H리그는 오는 10일 서울 SK핸드볼 경기장에서 열리는 남자부 두산과 하남시청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2025년 4월 말까지 이어진다.

여자부는 12월 인도에서 진행되는 아시아선수권대회를 마친 뒤 내년 1월부터 막을 올린다.

광주도시공사는 1월 2일 오후 6시 청주 SK호



크스아레나에서 경남개발공사를 상대로 이번 시즌 첫 대결을 치른다.

한편 전담수 광주시체육회장은 도시공사 선수단에 “새로 구성된 광주도시공사 선수단의 첫 발 걸음이 승리를 위한 발걸음이 되기를 희망한다. 선수 개개인의 성장과 강한 정신력을 통해 부상이 없는 최고의 시즌을 치르기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김진아 기자 jinggi@

전남 여성가족·시니어 배드민턴대회 성료

‘스포츠 메카’ 강진에서 열린 2024 전남 여성가족 및 시니어 배드민턴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지난 1-3일 강진 제1실내체육관과 제2실내체육관에서 치러진 이번 대회에는 전남 22개 시군 여성과 시니어(60세 이상) 선수 2000여명이 참가해 살고있는 기량을 겨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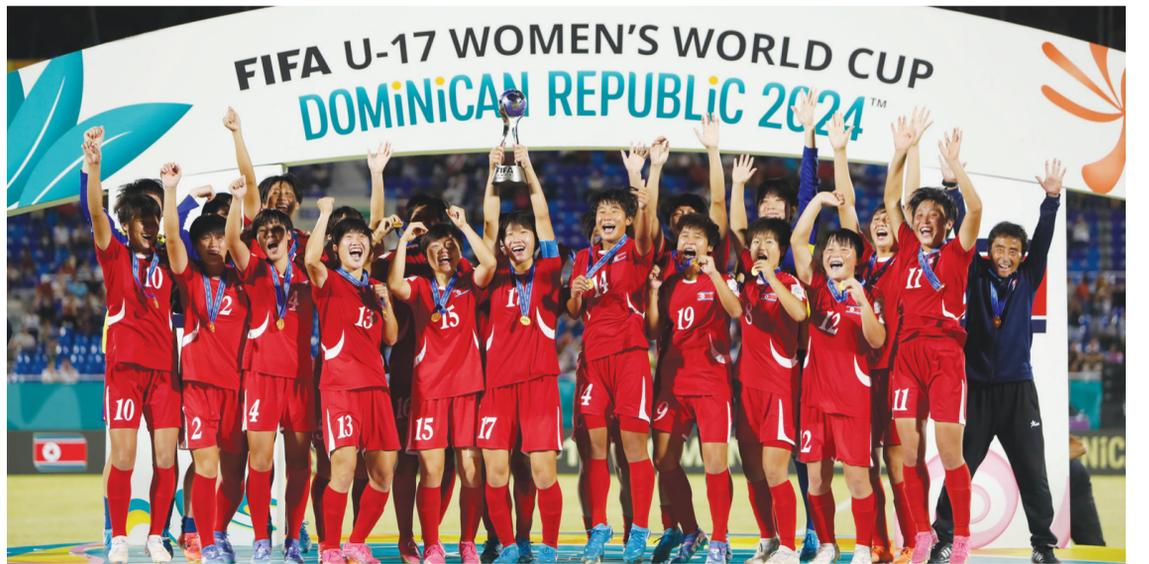
전남배드민턴협회가 주최하고 강진배드민턴협회와 함께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여성부는 1000여명 시니어는 50여명이 출전했으며, 여자복식·혼합복식·시니어복식 종목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치러

졌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생활 스포츠로서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배드민턴이 범도민 생활체육으로 보급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생활체육인 배드민턴의 종목 활성화와 스포츠 인구의 건강 증진 등을 위해 마련됐으며, 개최도시인 강진은 참가자들이 대회 기간과 맞물려 지역에서 치러진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에 방문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U-17 여자 월드컵에서 우승한 북한 선수들이 트로피를 들고 환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북한 U-17 여자 월드컵 8년만에 우승

스페인과 승부차기 끝 4-3 승리

북한 여자 축구가 17세 이하(U-17)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북한은 4일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의 에스 타디오 올림피코 펠릭스 산체스에서 열린 2024 국제축구연맹(FIFA) U-17 여자 월드컵 결승에

서 스페인과 전·후반 90분 동안 1-1로 비긴 뒤 이어진 승부차기에서 4-3으로 승리했다.

북한은 2016년 요르단 대회 이후 8년 만에 통산 세 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다불어 2010년 트리니다드토바고 대회 3위 결정전에서 0-1 패배, 2018년 우루과이 대회 8강 전 승부차기 패배 등 스페인과 악연도 끊었다.

스페인 2018년, 2022년에 이어 대회 3연패에 도전했으나 북한에 무릎을 꿇고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한편 북한은 지난 5월 아시아축구연맹(AFC) U-17 여자 아시안컵 우승팀 북한은 월드컵에서도 정상에 올랐다.

북한은 지난 9월 콜롬비아에서 열린 20세 이하 여자 월드컵에서도 8년 만에 챔피언 자리를 탈환해 여자 축구 강국의 위세를 실감케 했다.

/연합뉴스